



柳仁浩 三美企業(株) 代表理事

현장에서 음악연주를 감상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스피커를 통하지 않고서 아무리 좋은 앰프를 갖고 있다한들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때문에 원음 및 선명도를 중시하는 현시대에서 스피커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하겠다.

본지는 우리나라 전자공업 30년 역사와 함께 발전하여온 스피커부문 중소기업인 三美企業(株)을 찾아보았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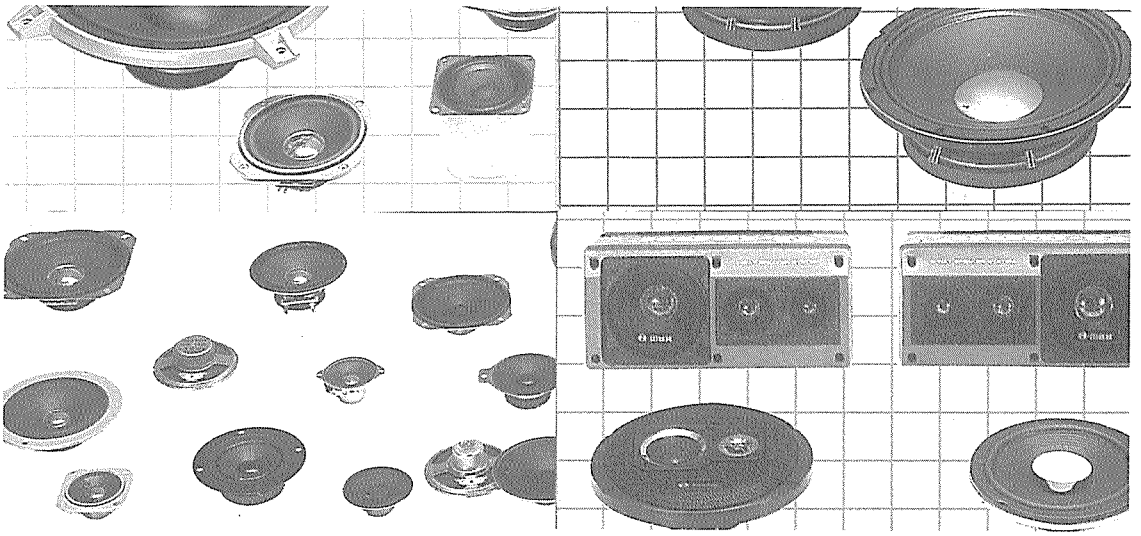
三美企業(株) (대표이사/한국스피커 연구조합 이사장: 柳仁浩)는 성수동 공장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도 널리 알려진 스피커전문 생산업체이다.

同社は 우리나라 전자공업의 불모지 상태인 1961년 설립, 끊임없는 제품개발에 힘써왔으며, 특히 전자공업의 첫 시련기인 70년대 초 및 70년대 말 오일 쇼크를 슬기롭게 극복하였고, 1988년 9월에 기업을 공개, '89년 총 매출액 163억원을 기록,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3년 어려운 시기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柳仁浩 社長은 취임이후 '86년 무선 스피커시스템을 개발, 수출하고 있으며 '85년 이후 국제화 진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스피커 단일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최근에는 태국, 알제리, 미국 등에 진출하여 해외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끈 모범 중소기업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상경력은 '71년 한국정밀기기 센타 정밀도 경진대회 참가, 정밀상을 수상했으며, '73년 상공부장관상, '86년 전자전람회 신제품 경진대회에서 무선 스피커로 한국전자공업진흥회상을 수상했다. 또한 '87년 수출의날 500만불 수출의 탑과 '89년 1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바 있다.

同社の 주요생산 제품은



오디오기기 및 악기용 콘스피커와 대중전달용 혼스피커, 카 스피커 등으로 국내시장 및 해외시장에 널리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스피커라 하면 Hi-Fi 스피커, General 스피커 등으로 알고 있으나 MI 스피커, P. A 스피커 등 세부적으로 연구, 개발한 제품이 있으며, 점차적으로 보다 선명하고 현장감을 중시하는 인간의 욕구에 의하여 무궁무진한 제품개발의 길이 열려있다”라고 柳仁浩 대표이사는 전망했다.

또한 三美企業(株)는 태국 및 알제리 진출에 이어 국내 스피커업체로서는 최초로 미국 켄터키주에 대지 6,000평 건평 1,300평 규모의 공장을 설립, 오는 6월부터 대구경 스피커 등을 본격 생산할 계획인데, 同社가 美 현지공장에 직접 나서게 된 것은 “중·대구경 스피커의 국내생산시 핵심소재 및 부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가격경쟁에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美에서의 생산은 핵심소재, 부품의 현지조달과 한국에서 반제품을 수입, 조립 가공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라고 한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의 국제화 전략에 관하여 柳仁浩 대표이사는

“전자업계의 국제화는 필수적이며, 목표이다. 그러나 대기업 위주로 발전되어온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형태는 대기업의 국제진출시 부품협력업체를 포함하여 함께 나아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더욱 어려운 상황은 담당할 인재의 부족, 자금력 열세, 언어장벽 등이 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제반사항을 고려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연구개발능력, 마케팅력에 힘써 독점적 우위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음의 완벽성을 추구하는 三美企業(株)는 우리나라 노조활동이 미약했던 '84년에 경영자측이 노사화합을 목표로 노조설립을 적극 추진하여 노조설립이래 현재까지 한번도 분규를 겪지 않고 있으며 회사 경영회의에도 노조대표가 언제든지 참가할 수 있게 문호가 개방되어 직원 모두가 인화단결 및 창의력을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로의 기업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